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한 달 동안의 축제 '페스티벌 누에'

지역주민·예술가·전문가·행정이 함께 만드는 일상 속 페스티벌

(재)완주문화재단 G3아트플랫폼 사업단은 '페스티벌 누에(Festival NU-E)' 한 달 동안의 일상적 축제를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완주 공동창조공간 누에(nue)에서 개최한다.

'페스티벌 누에(Festival NU-E)' 한 달 동안의 일상적 축제는 음악, 전시, 공연, 사진, 놀이, 미디어 아트, 여행, 캠프 등 다양한 분야를 결합한 예술체험 페스티벌로서 지역주민과 예술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진행할 예정이다.

한 달 동안의 일상적 축제인 페스티벌 누에(Festival NU-E)는 공동창조공간 누에(NU-E)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상 속 새로운 예술경험'을 통해 지역주민 커뮤니티·예술가·전문가·행정이 소

통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에 공동창조공간 누에(NU-E)의 열린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안과 밖의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하면서 전시, 퍼포먼스, 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분야의 어울림을 시도하였다.

'페스티벌 누에'는 오는 4일 콘서트 'Rock in NU-E'를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11일부터 12일까지 '다정 다감 협동조합'이 예술 멘토와 함께하는 '꿈바라기 캠프'가 진행되며, 11일부터 13일까지는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비그림틀 만들기'와 '나무와 만들기', '3D 프린팅 도자기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이 기간 '자립의 몽공의자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대형 의자들을 공동창조공간 누에

(NU-E)의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22일에는 '공동창조공간 누에'의 오픈 컨퍼런스'가, 23일 오전과 오후에는 '갈갈갈 인형극단의 '오라차차 방귀머리'가 공동창조공간 누에(nue)를 찾는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완주 산새들 희망학교'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와 완주 지역창년들과 함께하는 '보컬 영화제'가 페스티벌 기간 중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육아공동체 순가락'이 여는 '놀놀이 사진전', '이랑협동조합'이 진행하는 '가족캠프 이랑', '청소년 완주를 노래하다'의 콘서트, '공동창조공간 누에(nue) 퍼포먼스 아트 아카데미'의 작품발표회가 이

어진다. 이 외에도 10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는 공동창조공간 누에(nue)의 예술잡거단 <견> 참여 작가들의 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되며,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획전시 장근범 사진전 '잠령(齋嶺)'과 기억발전소의 '기억의 씨실과 상상의 날실' 아카이브전은 11월 13일까지 공동창조공간 누에(nue)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재)완주문화재단 G3아트플랫폼 임직원 단장은 "예술가와 지역주민,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하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며 "새로운 예술경험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일상 속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완주=이중복기자



전주교동아트스튜디오, 소찬섭

개인전 '낮은 잠기장의 독백'

"시간이 꽤 여러 해 흘러 모퉁이가 누렇게 변색이 된 내 낮은 잠기장은 외롭고 쓸쓸한 것들이 집을 짓고 산다.. 내 안에 집을 짓고 사는 미숙한 잠기장의 낮푸리가 나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온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너의 고향을 도와야겠다." 소찬섭의 개인전 '낮은 잠기장의 독백'이 오는 8일까지 전주교동아트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손때 묻은 잠기장(작업노트)속 낙서와 추억들을 석조·목조·금속단조 작품으로 형상화해 선보인다. 작가는 일반적으로 한국화의 주제로 보여져왔던 매화와 난초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공간속에 여백의미를 부여했으며 석조작품들은 인체를 간결한 형태로 변형하여 단순미를 극대화시켰다. 작품에 기초를 이루는 전체적인 이미지들은 인간 본연의 감성을 다룬 무박하고 소박한 작품들이지만 조형적 배치와 재료 간 혼용으로 세련미를 입혔다. 소찬섭 작가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석사학위(조소전공)를 취득했다. /정해은기자

전북음악협회, 전북창작음악대전 심포지움

전북음악협회(회장 이석규)는 4~5일 전북창작음악대전과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전북창작음악대전은 지난 8월 전북을 상징하는 역사·문화·자연·전래이야기·민담 등을 소재로 스토리텔링화한 작품을 공모 9월 심의를 거쳐 입상자를 개별 통보했다. 장르는 가곡과 실내악곡, 합창곡 등으로 나누며 시상부문은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등이다. 전체 대상(한국음악협회 회장상)에는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입상자들은 5일 오후 6시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4일 오후 6시 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실 중회의장에서는 전북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순수창작음악 브랜드 활성을 목적으로 한 전북창작음악대전 심포지움이 열린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한국음악협회 이철구 수석부회장이 '국내 국제음악제 현황 및 발전적 방향', 이창성 원광대 교수가 '지역예술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북 예술문화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한국문화예술복지교육원 김상휘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전북문화관광재단 상설공연추진단 홍승광 단장, 전북대 이은희 교수, 전북도인일보 김미진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 이석규 회장은 "전라북도 창작음악 대전은 우리의 얼과 땀이 뻗어 지역 곳곳의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재조명함으로써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해 다시 태어나는 창조적인 소통과 교류의 마당"이라며 "전북의 문화자산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최예대 화백 초대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최예대 화백 초대전 '배후적인 영감의 색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 별관인 근대미술관(구 18은행 군산지점)에서 2017년 1월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는 대만민국 현대미술협회 회원인 최예대 화백의 최근 작품 31점을 선보인다. 최예대 화백은 군산출신 화가로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에서 서안화와 캐나다 퀘벡대학교에서 조형미술을 전공하고 그루자아 공화국 국립미술관의 초대 한국현대미술제 대표로 활동했다.

최예대 화백은 한국의 구상 미술화가 중에서도 가장 앞선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강렬한 색감을 사용한 작품이 많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인상을 남긴다. 대표작으로는 '붉은산의 판타지'가 있다. 최예대 화백만큼 한국인의 정신과 자연의 조화를 매우 실득력 있게 표현하는 화가는 아주 드물다고 평한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군산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의 작품을 많은 분들이 감상하기를 바란다"며 "그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근기자

동시창작모임 동시랑, 안도현 동시 콘서트 '기러기랑 동시랑 노을자'

동시창작모임 동시랑은 4일 오후 7시 전주 수평원 5층 드림홀에서 '기러기랑 동시랑 노을자' 동시콘서트를 연다. 이날 행사에선 최근 동시집 <기러기는 차갑다>(문학동네)를 출간한 안도현 시인과 함께 동시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1부 공연은 초등교사 아카펠라팀 <꽃밭정자> 공연과 동시 낭송이 있으며, 2부 동시 토크는 유강희 시인(동시랑 회장)과 안도현 시인의 대담 '기러기랑 동시랑 놀자'와 청중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뤄진다.



안도현 시인은 원광대 국문과와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첫 시집 '서울로 가는 전봉준'을 비롯해 '북향'까지 10권의 시집을 냈다. 소설시문학상, 운동주상, 백석문학상, 임화문학예술상 등을 받았다. 현재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의 임미성 010-8629-9531. /정해은 기자

전주문화재단, 2016전주시민놀이터 페스티벌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재)전주문화재단(이사장 김승수)에서는 시민·예술인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전주시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2016 전주시민놀이터 페스티벌 '시인, 예술로 하나 되다'를 개최한다. 축제는 지역예술가의 참여를 확대한 부대행사와 전주시 동호회원들의 메인공연으로 구성된다. 지역 예술가가 참여하는 부대행사는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 공연장 로비와 야외무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부대행사에는 지역 예술가 6명이 참여해 사진전시회, 거리공연, 예술마차

프리마켓(서양화, 웹툰 등)을 펼친다. 메인공연에선 사전 공모작품을 거쳐 선정된 오케스트라, 어쿠스틱, 성악 등 전주시동호회 8팀이 오후 6시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 공연장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메인 공연팀으로 참가하는 가야금병창팀 대표 전영조씨는 "일반 아마추어 동호회는 연습할 공간이 부족하고 공연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연습공간을 제공 받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영광이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전주시와 (재)전주문화재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문의의 283-9222. /정해은 기자

김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김제시립합창단(단장 이승복 부시장)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5회 김제시립합창단 정기주회 "가을밤에 합창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연주한다. 이번 연주회는 김효성 상임지휘자 지휘로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평소 우리 귀에 익은 명곡들로 아름다운 하모니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감미롭고 달콤한 무대를 준비하였다. /김제=곽노태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11월 4일>

<p>▷ 쥐띠 4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인덕이 따르니 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 60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거나 곧 해소. 72년생: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해야 하는 운. 84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살펴라.</p>	<p>▷ 소띠 49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 61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따르니 곧 회복된다. 73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계약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 85년생: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p>	<p>▷ 호랑이띠 50년생: 매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운. 62년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운. 74년생: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기다려라. 8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p>	<p>▷ 토끼띠 51년생: 크고 멀리 보아야 하는 운이다. 긍정적인 마인드 잃지 말라. 63년생: 손재수가 있는 운이니 타인과의 화합에는 좋은 날이다.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전이 있으며 좋은 결과. 87년생: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운.</p>
<p>▷ 용띠 52년생: 성급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면 후회할 상황이 발생.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라. 76년생: 주위의 질투로 인해 구설이 발생. 88년생: 빛 사람의 인정을 받는 운이니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라.</p>	<p>▷ 뱀띠 53년생: 계획의 변동, 변화는 실패를 불러오니 주의하라. 65년생: 결과는 좋다. 당차게 행동하면 상대에게 신뢰. 77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 89년생: 늦은 오후에는 운이 막히게 되니 부지런히 움직여라.</p>	<p>▷ 말띠 54년생: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우니 큰 변화나 욕심은 금물이다. 66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니 생각하고 행동하라. 78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날이다. 동기화도 약속. 90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패수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p>	<p>▷ 양띠 55년생: 매사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7년생: 망설이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79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혼자 해결해 나가면 결실. 9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활기탈루 허다하는 시비수를 먼저 못한다.</p>
<p>▷ 원숭이띠 55년생: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 급히 먹은 음식에 체한다. 69년생: 대외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좋다. 81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하라. 대가없이 주는 사람이 아니다. 93년생: 동기화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p>	<p>▷ 닭띠 57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다. 6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주의하라. 8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 93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참작하라.</p>	<p>▷ 개띠 48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심한 운이니 적당한 휴식. 60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뒷일을 생각하라. 70년생: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82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 무리는 금물.</p>	<p>▷ 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으니 실수를 주의하라. 59년생: 타인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운이니 지니친 호의를 주의. 71년생: 걸의 모습보다는 내실에 치중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긴다.</p>